

광주시·전남도의원들 물갈이 공포에 떤다

신당 통합 신인 대거 등장… 경쟁 치열

전략공천·여성 우대 등 변수도 많아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앞두고 민주당 일색이었던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과거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던 선거 구도가 합당에 따라 셈법이 복잡해졌고, 신인들의 대거 등장으로 당내 경선도 장담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또 전략공천과 여성 우대 등 변수도 많아 지역 광역의원들이 물갈이 공포에 휩싸였다.

전남도의회 무안 선거구의 한 도의원은 최근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지역구를 돌며 유권자를 만나고 있다. 이 도의원이 찾아 가는 곳도 다양하다. 여성·농민 단체의 모임과 교육현장, 등산·축구 등 동호회와 종교·장학재단 모임 등 지역구 내에서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같은 지역구에 기존 경쟁자다 옛 새정치연합 후보까지 나타나 당내 경선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과거, 현직 도의원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재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식 선거기간에만 표밭을 다녔지만, 현재로선 재공천을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새정치연합의 가세로 신당의 경선 방식이 원점에서 논의되고 있고, 자칫 당내 공천에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닦는 광역의원들이 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전남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천 과정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를 차별한다면 이는 지방의회 경시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광역의원 공천 방법은 광역단체장과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

했다.

전남도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조직이 사실상 없는 새 정치연합 층 주인인 5대5 지분 나누기 선출안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경우, 새정치연합 층 출마 예정자들의 숫자가 상당해 민주당 층 현역 의원들로서는 아무것도 못해보고 절반 가량은 물갈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민주당 내 경쟁자마다 새정치연합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들까지 합쳐지면서

광역의원 공천 경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또 여성의 참여 폭을 늘리자는 주장도 제기돼 비교적 여성 비율이 낮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현역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신당의 광역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국민경선, 당원투표, 배심원제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G7, ‘국제회의서 러 배제’ 헤이그 선언 채택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주요 국제회의에서 당분간 제외하기로 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의 긴급제의로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마련된 이 회동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행정부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더 가혹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경고를 담은 ‘헤이그 선언’을 채택했다.

/연합뉴스

이용섭 펀드 모금 7시간만에 5억 돌파



서 정말 감사하다”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광주를 만들어 보답하고 2017년 정권교체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펀드 액수는 1000만원 1명, 500만원 1~2명이고, 10만원 이하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펀드 이자는 2014년 2월 CD 금리 (2.65%) 수준보다 다소 높은 연 3.0%를 적용해 일할 계산되며, 원금과 이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오는 8월 4일 펀드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선거 관련 펀드는 후보자들에게 사실상 유권자 및 지지자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먼저 벌리는 것으로, 펀드 가입자가 이를 받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은행 이자를 받아야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달빛동맹’ 민간으로 확대된다

광주국제행사성공협·대구문화시민협 협약

영·호남 대표도시인 광주·대구간 “달빛동맹”이 민간으로 확대된다.

광주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와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27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달빛시민협의회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두 단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종 국제행사 개최 시 지역 간 상생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고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위한 매뉴얼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협의회 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교차 방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대구문화시민운동협의회 관계자는 “2015광주 하계U대회를 앞두고 있는 광주를 적극 돋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 시민 단체의 노하우를 배우고, 광주와 대구 시민이 협력하는 연결 고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9년부터 대구(달구벌)와 광주(빛고을)는 상생발전을 위해 옛 지명의 앞글자를 딴 ‘달빛동맹’이란 이름으로 다양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요즘 젊은이들은 닭도 못 잡는다. 내가 대학에 있을 때다. 소설 작품 중에 닭 잡는 대목이 있어, 닭을 잡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30여 명 중에서 손을 든 학생은 한두 명에 불과했다.

한편 현재 신당의 광역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 국민경선, 당원투표, 배심원제 등이 거론되고 있고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골 출신들조차도 닭을 잡아 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닭죽이는 먹고 싶지만 닭을 직접 잡는 것은 싫다고 했다.

아버지는 어린 내게 꾀를 보지 않고 닭

잡는 법을 가르쳤다. 윈 손으로 양 날갯죽지를 단단히 거머쥔 채, 오른 손으로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닭 모자리를 비틀어서 접은 다음, 아귀에 힘을 주고 조이면 닭은 내에 죽었다. 또는 목을 비튼 채로 땅바닥에 놓고 밭을 지그시 밟으면 다리를 쭉 뻗고 죽기도 했다.

옛날에는 아이들도 어른들에게 닭 잡는 법을 배웠다. 지금도 필리핀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가정시간에 닭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한다. 닭 목을 칼로 끊거나, 목의 경동맥을 잘라낼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낸 후 닭다리를 잡고 쥐뿔놀이 하듯 돌리면 죽는다.

선진국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의 가축

만을 살처분하는데, 우리는 예방 차원이

오리들을 몰아넣은 다음, 비닐을 들어 올려

오리들을 덮어씌우고 공기가 새지 않도록

봉하더니, 이산화탄소 가스를 주입했다. 비

닐 속 오리들이 몸부림치다가 죽었다.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닭 죽이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도시 출신은 정신적 장애가 더 크다. 한 공무원은 밤에 잠자리에 들면 꽤 우는 오리 소리가 들려 잠을 잘 수 없다고 했다.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마다 살처분만이 최상의 방법인 듯이 해결하는 이 야만적 대응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2003년 이후 3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고 현재까지 보상비만도 6000억 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되풀이 되는 행정편의식 대응으로 농촌경제가 무너지고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만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동물들도 사랑을 안다. 길러 본 사람은 그 사랑을 절감한다. 동물도 살고 사람도 사는 ‘생명 평화’의 길은 없는가.

선진국은 조류독감 발생 농가의 가축 만을 살처분하는데, 우리는 예방 차원이

살처분 당하는 악몽을 꿔요

나는 생오지로 온 후부터 토종닭을 기르고 있다. 잡아먹기보다는 새벽닭 우는 소리가 듣고 싶어서다. 앙계장 닭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지만 우리 집 수탉은 새벽 5시쯤이면 아침없이 혼을 치고 운다. 그 소리가 새벽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처럼 듣기 좋다.

그런데 손자들이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내네는 닭을 좀 잡아달라고 성화다. 하나 내가 기른 닭을 내 손으로 죽이기는 싫다.

300평 품 되는 널따란 닭장에 토종닭 30마리를 길렀다. 어느 날 외출한 사이에 우리 집 진돗개가 한꺼번에 19마리를 물어 죽인 일도 있었다. 모두 묻어주었다. 지금 11마리가 남아 있는데, 조류독감이 유행하자 군에서 여러 차례 전화를 해 닭장 소동을 당부하면서도 되도록 빨리 잡아먹기를 권했다. 그러나 나는 닭을 잡지 않고 있다.

조류독감이 유행한 지 두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 전국에서 1000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다.

닭을 잡아 산 채로 대형 마대에 넣고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파서 묻는 장면을 TV에서 보았다.

방재복을 입은 공무원들이 오리를 살처분하는 장면도 보았다. 파란 비닐 위로

라는 이유로 감염된 가금류의 20배 이상을 과도하게 살처분하고 있다. 이 같은 비인간적인 살처분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공무원노조에서는 동원된 공무원들의 증언대회와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한다.

방법은 없는 것일까. 1평방미터당 8마리를 사육해야하는데도 케이지 사육 등

좁은 공간의 공장식 사육환경부터 시정하고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감염경로를 규명하고 예방 지역 내 동물에 백신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과도한 육식문화에 대한 반성이 있다. 나는 몇 년 전에 과도한 육식문화를 비판하기 위해 ‘숲으로 간 위리’라는 장편 동화를 펴냈다. 닭과 돼지 등 가축들이 인간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자유를 찾다 그들의 본디 고향인 숲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다.

“밤마다 내가 살처분 되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요.” 살처분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하소연이다. 만약 사람에게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이 감염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렵다. 영화에서처럼 닭과 오리가 그랬듯이, 사람도 격리되고 살처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소설가〉

15P-13층

- 실평 - 9P
- 방향 - 무등산
- 대출 - 1200만원 안고 가능
- 임대 - 3백만원에 2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5천만원
- 매매가 - 3천2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29P-사무실 적합

- 실평 - 18P
- 방향 - 하천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2천5백만원 ~ 3천만원 가능
- 임대 - 5백만원에 월35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1억 정도
- 매매가 - 6천5백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주)오천경매

대표, 최선규 드림
문의, 010-3605-5000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경매”에 관한 모든 것!

- 특수비법 배우실 분!
입장/교육비 등 1200만원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주1회 3개월 완성
1대1 개인지도
배우면서 투자 가능
(단독/공동투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공동 입찰 하실 분!
소유권 이전으로 보장
매매 할 때까지 책임 보장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근저당으로 보장
월 10% 이상 이자지급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정보 공유 등 집기 제공
연 사용료 1200만원
- 매수 신청 대리!
원하는 물건을
최소비용으로 처리

수기동 오피스텔 “매매”

회사 사정상 급매, 문의 010-3605-5000

53P-전체 올수리(방2, 거실)

- 실평 - 33P
- 방향 - 양동 ~ 하천쪽, 코너, 전망 좋음
- 용도 - 주거겸 사무실
- 대출 - 5천만원 ~ 1억원 가능
- 임대 - 1천만원에 월80만원 가능
- 시세 / 분양가 - 2억 정도
- 매매가 - 1억5천만원
-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